

2022년 2월 해양 기상·기후정보



발표일: 2022년 1월 28일

해양 기상·기후

○ 1월 해양 분석(최근 5년('17~'21년) 및 2022년)



○ 2월 해양 특성(최근 5년('17~'21년))



○ '22년 2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 (유의파고) 동해, 제주도, 서해남부 해상은 대부분 파고가 약간 높겠으며, 하순에 파고가 높은날이 있겠음. 나머지 해상에서는 대부분 파고가 낮겠으나, 중순(말)에서 하순(초)에 파고가 약간 높은날이 있겠음.
- (수온) 해역별 수온 분포는 서해 5.0~10.0°C, 남해 7.0~16.0°C, 동해 9.0~13.0°C의 분포를 보이겠음

조석

○ 조석정보(고극조위, '22년 2월)

- 인천: 2일(896cm) / 완도: 2일(393cm) / 포항: 1~3일(21cm)

안전

○ 해양선박 사고(최근 5년간('17~'21년))

- 전체 18,106척 중 2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917척(5.1%)으로 연평균 183척의 사고가 발생
- ☞ 최근 5년간('16~'20) 2월 평균 14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 안전사고의 발생비율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로 선내 작업안전 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어업

○ 2월 어황 전망

- 갈치는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 고등어·참조기·망치고등어는 평년수준, 전갱이는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멸치는 평년비 부진, 살오징어는 평년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17~'21년) 2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전 해상	0.8m(상순 0.9m / 중순 0.9m / 하순 0.8m)로 전월(0.9m)보다 0.1m 낮음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6m (전월과 비슷)	1.1m (전월과 비슷)
남 해	0.5m (전월과 비슷)	1.1m (전월과 비슷)
동 해	1.0m (전월과 비슷)	1.5m (전월보다 0.2m 낮음)
제주도	0.9m (전월과 비슷)	1.5m (전월보다 0.1m 낮음)

<순별 평균 유의파고>

- 2월 상순과 중순에 모든 먼바다 해상과 동해중부 앞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동해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앞바다 해역에서 파고가 낮았음
- 하순에 서해(중부·남부)를 제외한 모든 먼바다 해상은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중부·남부) 먼바다와 모든 앞바다 해상에서는 파고가 낮았음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6	0.7	0.4	1.2	1.3	0.8
남 해	0.5	0.5	0.5	1.1	1.2	1.1
동 해	1.0	0.9	0.9	1.7	1.5	1.3
제주도	0.9	0.9	0.9	1.5	1.6	1.5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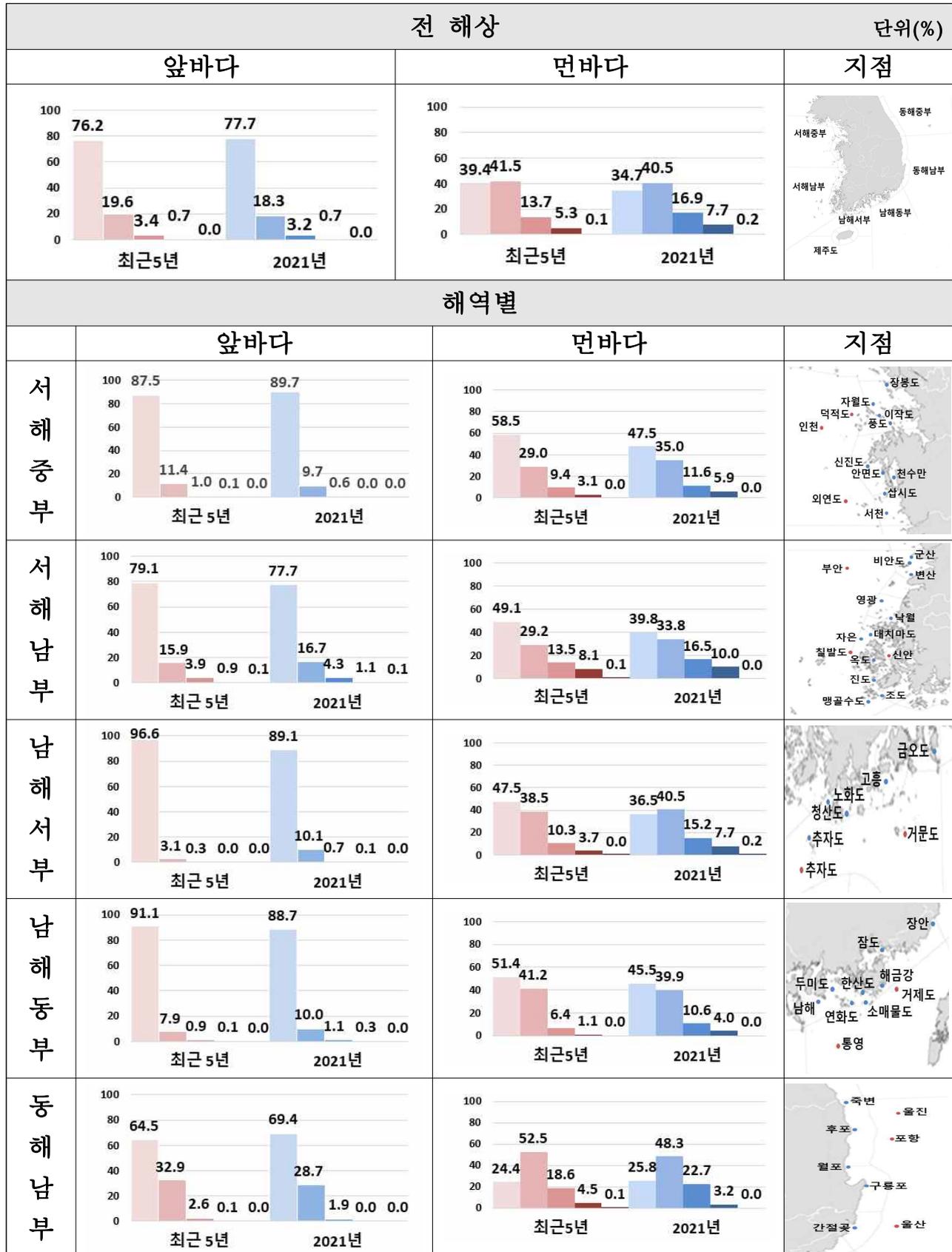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7~'21년) 2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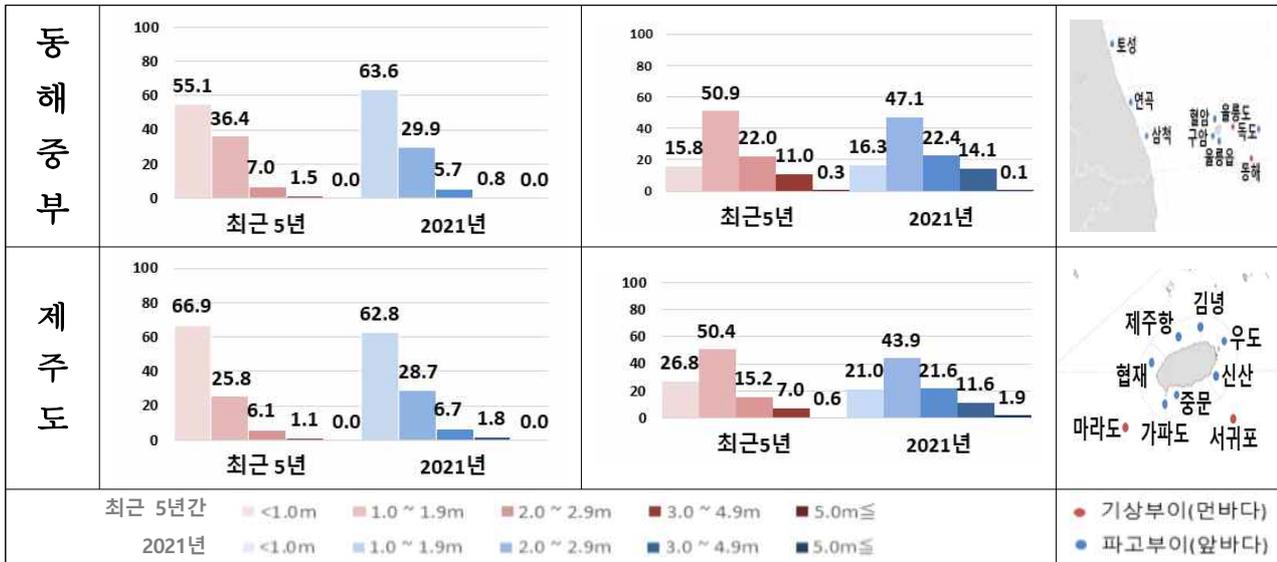
- 서 해: 앞바다 3.3m / 먼바다 3.3m
- 남 해: 앞바다 2.0m / 먼바다 3.0m
- 동 해: 앞바다 3.0m / 먼바다 3.4m
- 제주도: 앞바다 2.9m / 먼바다 3.4m

○ 관측 이래 2월 지점별 기상부이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05.2.1.	4.5 (5.5)	부안	'20.2.17.	4.5 (5.0)	칠발도	'97.2.16.	4.4 (5.7)
남 해	추자도	'21.2.27.	4.0 (5.4)	거제도	'10.2.11.	3.8 (5.0)	추자도	'20.2.17.	3.8 (4.7)
동 해	울릉도	'13.2.8.	4.6 (5.1)	울릉도	'20.2.17.	4.5 (5.6)	동해	'20.2.17.	4.4 (5.1)
제주도	마라도	'21.2.27.	5.2 (6.1)	마라도	'21.2.26.	4.5 (5.9)	마라도	'20.2.17.	4.4 (5.8)

■ 최근 5년간('17~'21년) 및 지난해('21년) 2월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간('17~'21년) 및 지난해('21년) 2월 전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 (앞바다) 1m미만 76.2%, 2m이상 4.1%
(먼바다) 1m미만 34.7%, 2m이상 24.8%
- 지난해 (앞바다) 1m미만 77.7%, 2m이상 3.9%
(먼바다) 1m미만 34.7%, 2m이상 24.8%

○ 최근 5년간('17~'21년) 2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해: (앞바다) 1m미만 82.7%, 2m이상 3.3% (먼바다) 1m미만 54.8%, 2m이상 16.2%
- 남해: (앞바다) 1m미만 92.7%, 2m이상 0.8% (먼바다) 1m미만 49.5%, 2m이상 10.7%
- 동해: (앞바다) 1m미만 58.9%, 2m이상 6.1% (먼바다) 1m미만 20.9%, 2m이상 27.3%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66.9%, 2m이상 7.2% (먼바다) 1m미만 26.8%, 2m이상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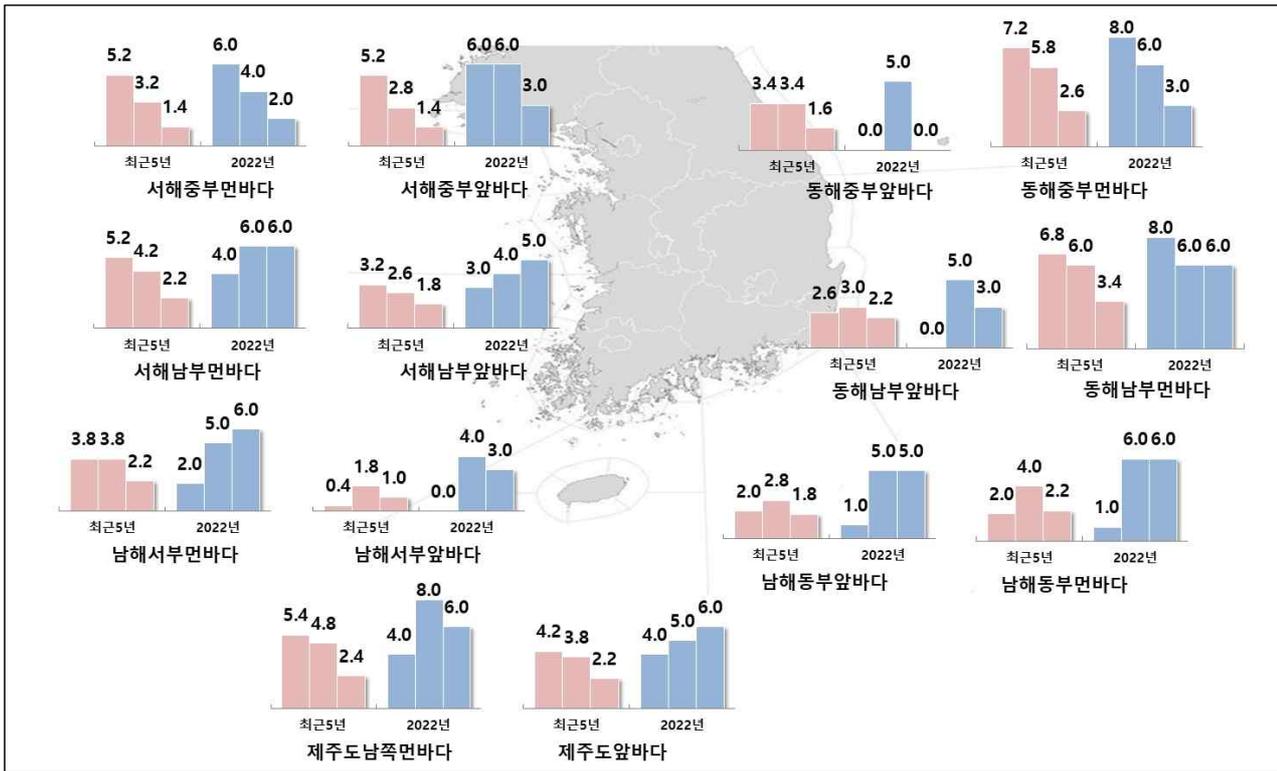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7~'21년) 2월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

- 최근 5년: (1m미만) 남해서부앞바다(96.6%) / (2.0m이상) 동해중부 먼바다(33.3%)
- 지난해: (1m미만) 서해중부앞바다(89.7%) / (2.0m이상) 동해중부 먼바다(36.6%)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신안,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위도*, 불무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사랑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울릉서부, 독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지점은 최근 5년 통계 추가지점임

■ 최근 5년간('17~'21년) 및 지난해('21년) 2월 풍랑특보 일수



<최근 5년간('17~'21년) 및 '21년 2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2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5년: 9.6일, 전월(10.4일)보다 0.8일 적음
- 지난해: 13.0일, 전월(11.9일)보다 1.1일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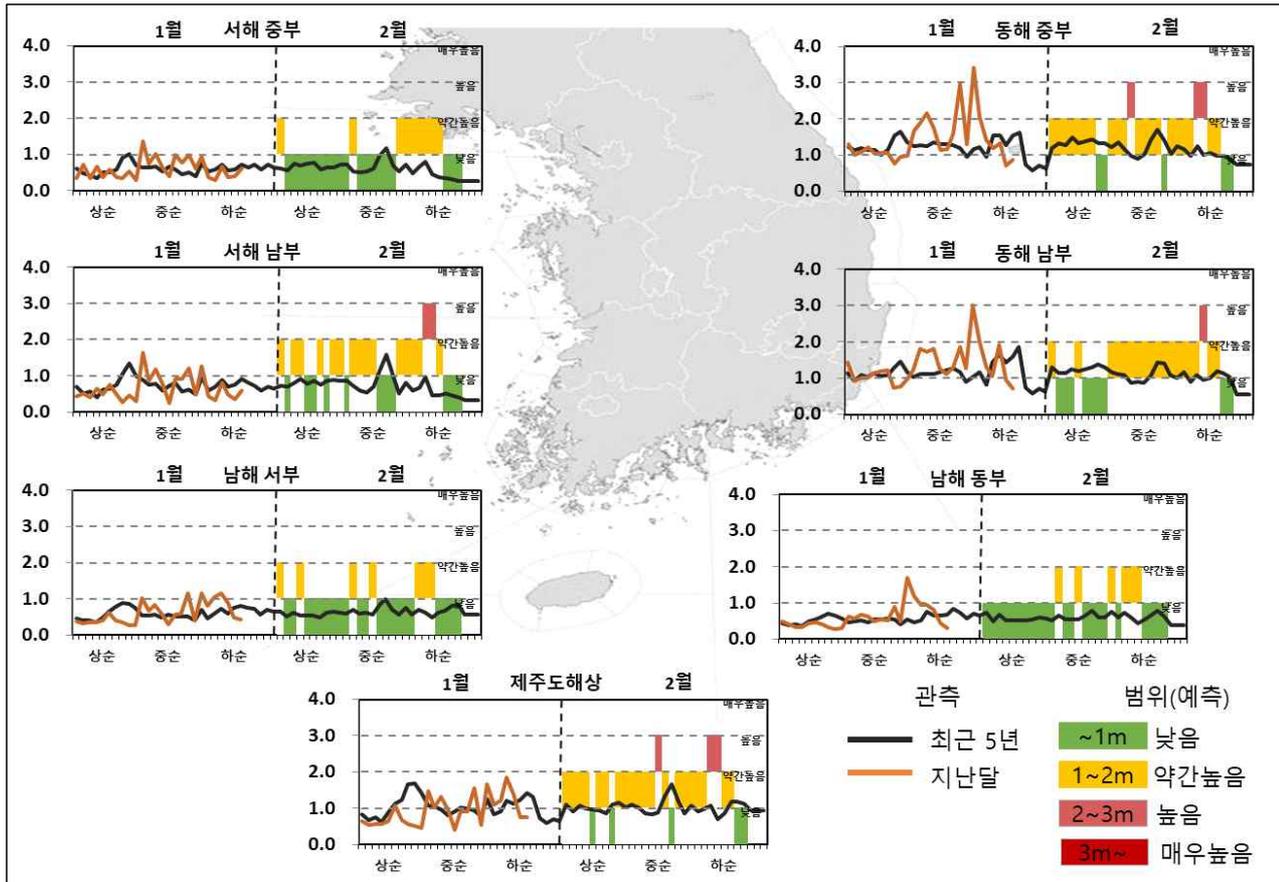
○ 2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 상순 3.8일 / 중순 3.7일 / 하순 2.0일
- 지난해: 상순 3.4일 / 중순 5.4일 / 하순 4.3일

○ 2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5년: 동해남부 먼바다(30.6일) / 남해서부 앞바다(7.2일)
- 지난해: 동해남부 먼바다(20.0일) / 동해중부 앞바다(5.0일)

■ 유의파고 최근 5년('17~'21년), 지난달(1월) 관측 및 2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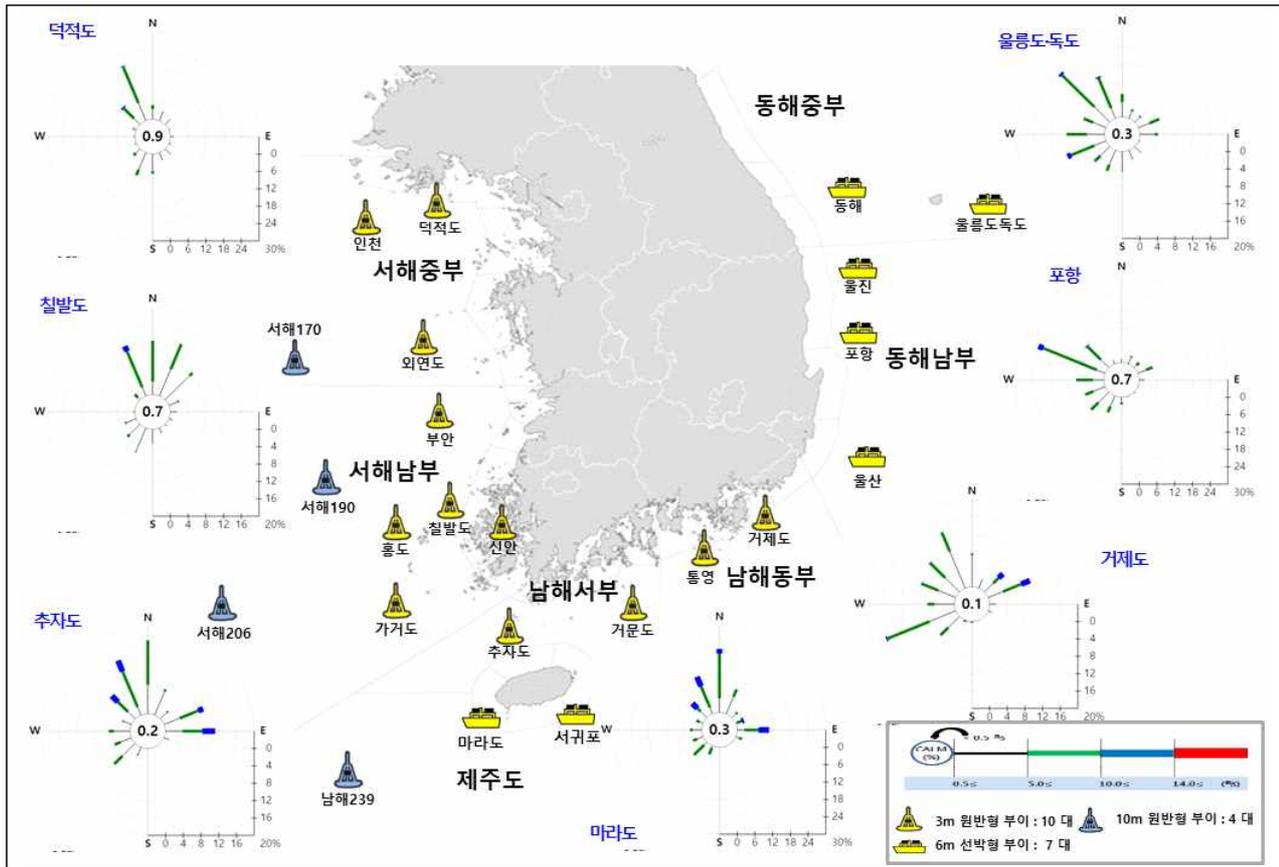
< 유의파고 2월 예측과 1월 관측(1.1.~27.) 및 최근 5년간('17~'21년) 관측 평균 >

- ☞ 유의파고 관측은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관측된 일 평균 유의파고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5년(—)은 '17~'21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1년 1월(1일~27일)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파고 예측은 수치모델에서 산출된 결과의 해역별 평균값으로, 구간값으로 표출함
 ※ 파고 구간값: **낮음**(1m 미만), **약간높음**(1~2m), **높음**(2~3m), **매우높음**(3m 이상)
- ☞ 파고 예측정보는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예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역	해양기상부이	파고부이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신안,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위도*, 불무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사랑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울릉서부, 독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율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활용 관측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지점은 최근 5년 통계 추가지점임

■ 지난해('21년)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 '21년 2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 지난해('21년) 2월, 각 해역의 풍속 계급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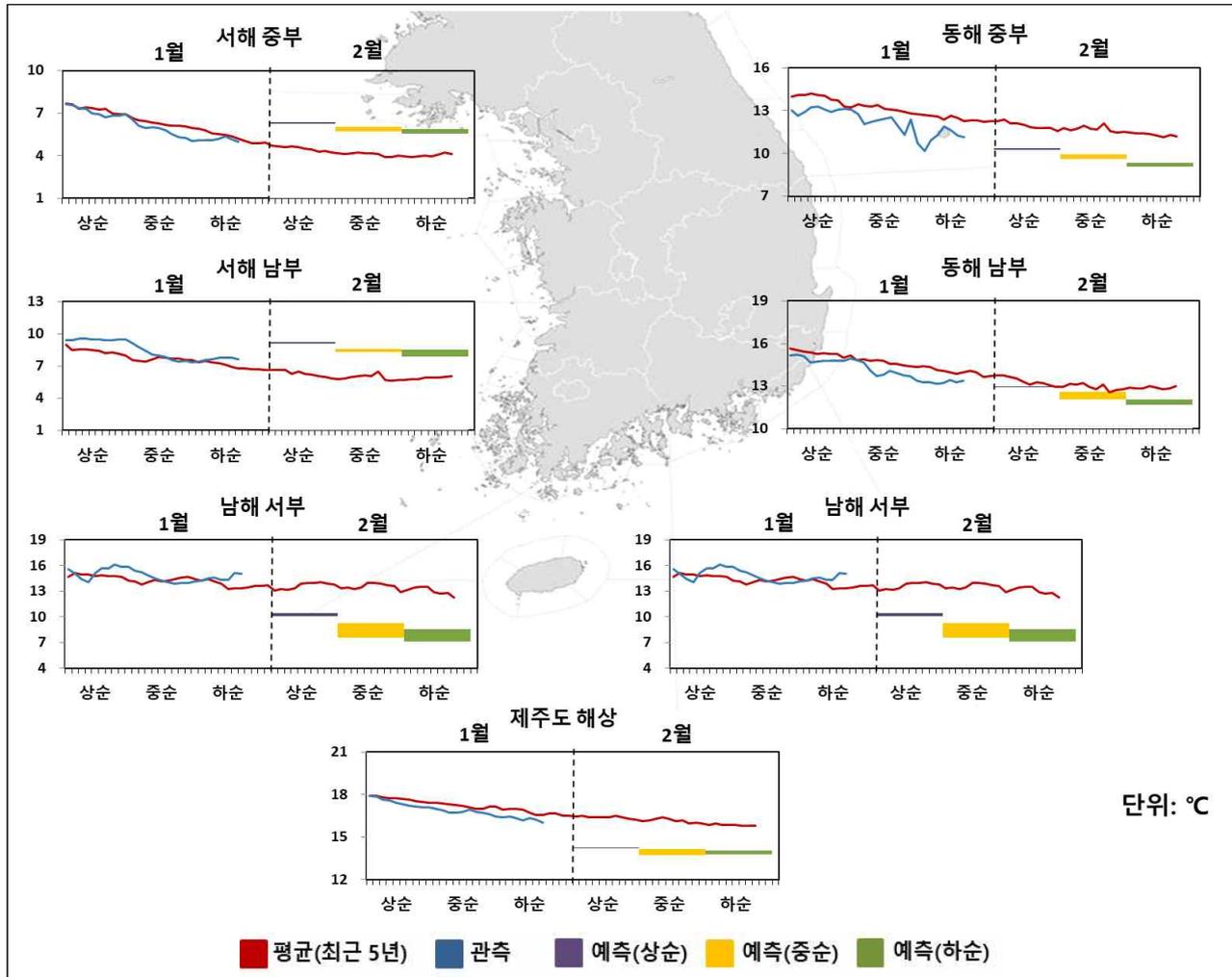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NW	1.2	25.2	41.3	29.3	2.4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170
서해남부	N	0.8	22.1	39.1	35.4	2.6	칠발도, 부안, 신안, 서해206, 홍도, 서해190
남해서부	NW	0.3	9.2	42.8	38.6	9.2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W	0.2	12.1	47.5	33.7	6.6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W	0.4	10.7	45.6	41.1	2.4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NW	0.2	9.7	50.0	38.6	1.5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N	0.1	9.5	32.5	46.5	11.5	마라도, 서귀포, 남해239
전 해상		0.5	14.0	42.7	37.6	5.1	

[참고] __지점은 지난해('21년) 통계 추가지점임

- 주풍계: 2021년 2월 모든 해역에서 북풍~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5.0m/s 미만 14.5% / 5.0 ~ 9.9m/s 42.7% / 10.0m/s 이상 42.7%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5.0m/s 미만: 서해중부(26.4%) · 10.0m/s 이상: 제주도(57.9%)

☞ 지난해('21년) 2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 해수면온도 지난달(1월) 관측 및 2월 예측



< 해수면온도 2월 예측과 1월 관측(1.1.~27.) 및 최근 5년('17~'21년) 관측 평균 >

- ☞ 해수면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최근 5년)'은 최근 5년간('17~'21년 1월과 2월) 관측값의 평균, '관측'은 지난달('22년 1월)의 기상부이 관측값임
 - 관측지점: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칠발도, 부안)
 남해서부(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거제도, 통영), 제주도(마라도, 서귀포)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울산, 울진)
- ☞ 해수면온도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 평균 예측값을 사용하며, 실제 부이 지점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난달 ('22년 1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특성

해역	1월 해수면온도(°C)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6.7~7.6 (-0.2)	5.1~6.5 (-0.5)	5.0~5.4 (-0.2)
서해남부	9.4~9.6 (1.1)	7.3~9.1 (0.4)	7.4~7.8 (0.6)
동해중부	12.6~13.3 (-0.8)	10.7~12.7 (-1.1)	10.2~11.9 (-1.3)
동해남부	14.7~15.2 (-0.4)	13.4~14.8 (-0.7)	13.2~13.4 (-0.7)
남해서부	14.0~16.2 (0.6)	13.9~15.4 (0.1)	14.2~15.2 (0.9)
남해동부	13.7~15.0 (0.2)	12.9~13.5 (-0.4)	12.8~14.3 (-0.3)
제주도남쪽	17.1~17.9 (-0.3)	16.5~17.0 (-0.4)	16.0~16.4 (-0.4)

○ 최근 5년간('17~'21년) 2월 해수면온도 평균 및 '22년 2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2월 해수면온도 평균		(예측) '22년 2월 해수면온도	
관측지점	범위(°C)	해역	범위(°C)
덕적도, 외연도, 인천	3.9 ~ 4.7	서해중부	5 ~ 7
칠발도, 부안	5.6 ~ 6.6	서해남부	8 ~ 10
울릉도, 동해	11.2 ~ 12.4	동해중부	9 ~ 11
포항, 울산, 울진	12.6 ~ 13.8	동해남부	12 ~ 13
거문도, 추자도	12.3 ~ 14.0	남해서부	7 ~ 11
거제도, 통영	12.5 ~ 13.8	남해동부	14 ~ 16
마라도, 서귀포	15.8 ~ 16.5	제주도남쪽	14 ~ 14

점점 더 뜨거워지고, 거칠어지는 한반도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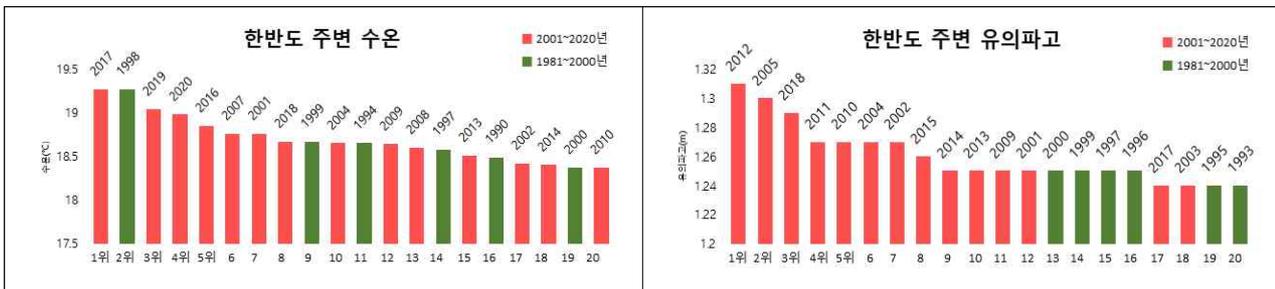
- 해양기후 분석 보고서(1981~2020년) 첫 발간 -

○ 해양기후변화 동향 파악을 위해 1981~2020년 동안의 수온과 파고 변화 경향을 분석한 '해양기후 분석 보고서(1981~2020년)' 발간

- 지난 40년간 한반도 주변의 수온¹⁾과 파고²⁾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상승 경향 뚜렷

1) 한반도 수온 상위 10위 연도 : 2017>1998>2019>2020>2016>2007>2001>2018>1999>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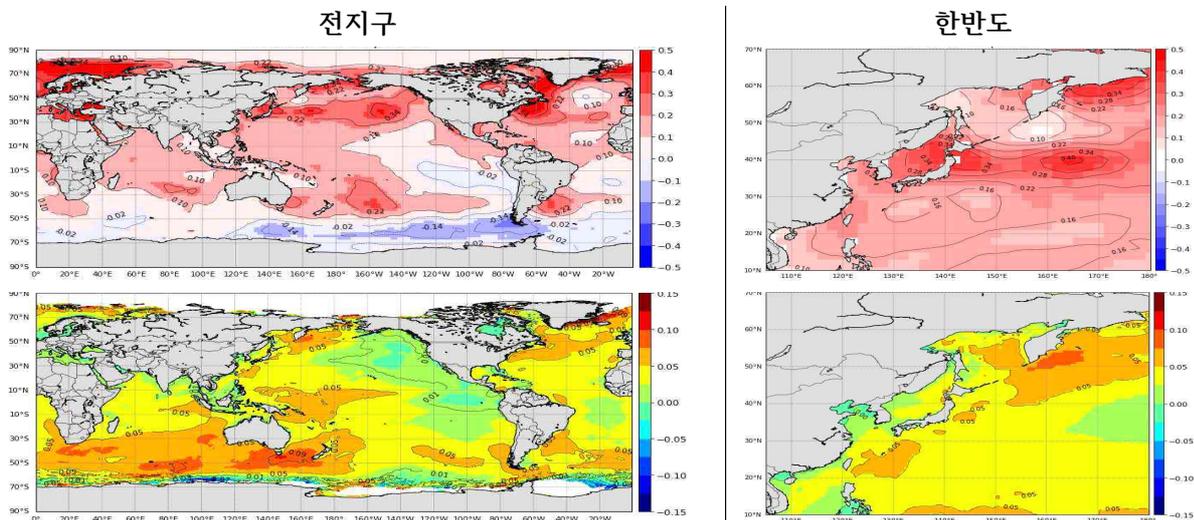
2) 한반도 파고 상위 10위 연도 : 2012>2005>2018>2011>2010>2004>2002>2015>2014>2013



한반도 주변 수온 상위 20순위(1981~2020년)

한반도 주변 유의파고 상위 20순위(1981~2020년)

○ 구평년(1981~2010년)과 신평년(1991~2020년)을 분석한 결과, 신평년에서 수온과 파고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수온의 경우 전지구보다 한반도 바다에서 2배 가 가까운 상승 경향



전지구와 한반도 수온(위), 유의파고(아래)의 신-구평년 간 차이 분포도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대기의 안정도가 변화하면서 바다 위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짐(Nature, 2019)

해양조석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2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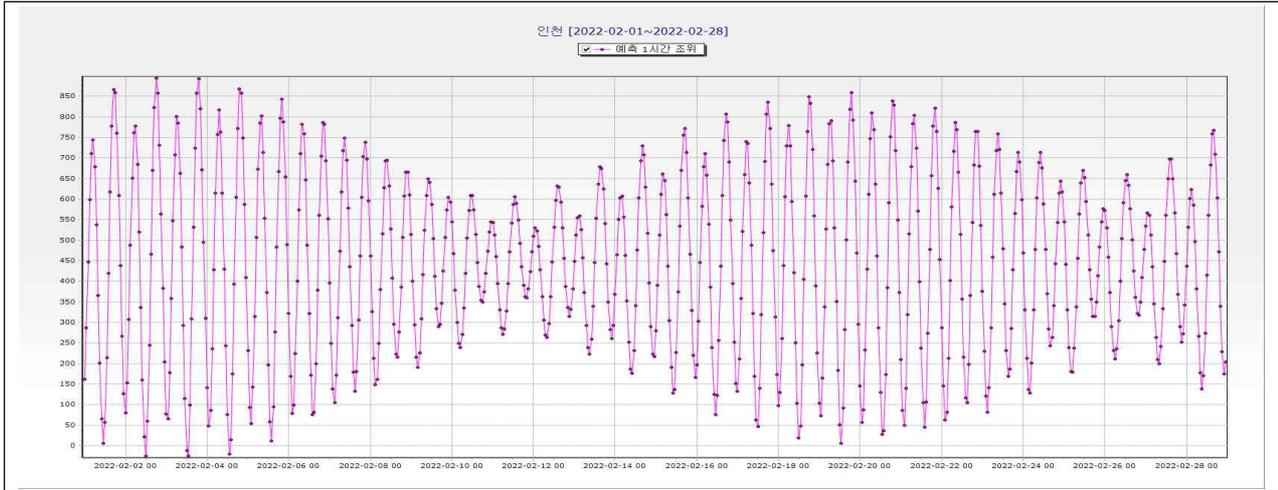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2월 2일에 89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2월 2일에 393cm, 동해안의 포항은 2월 1일, 2일, 3일에 21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2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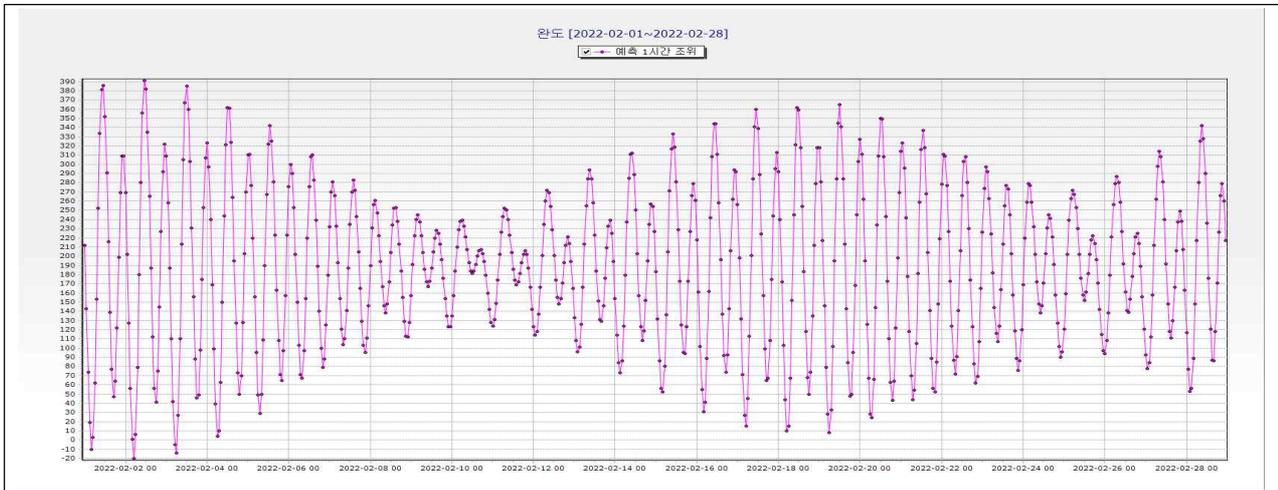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삭 2.1)		대조기(망 2.17)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천	18:09	896	18:53	859
	안흥	17:07	673	17:50	645
	군산	16:23	695	17:08	660
	목포	15:29	478	15:42	433
남해안	제주	11:53	281	12:02	257
	완도	11:16	393	11:26	366
	마산	10:09	200	10:14	184
	부산	09:34	123	10:12	117
동해안	포항	02:08	21	03:06	14
		03:04		03:50	
		04:01		04:35	
속초	03:00	30	02:59	27	
			03:37		
울릉도	02:18	18	02:21	12	

☞ 2021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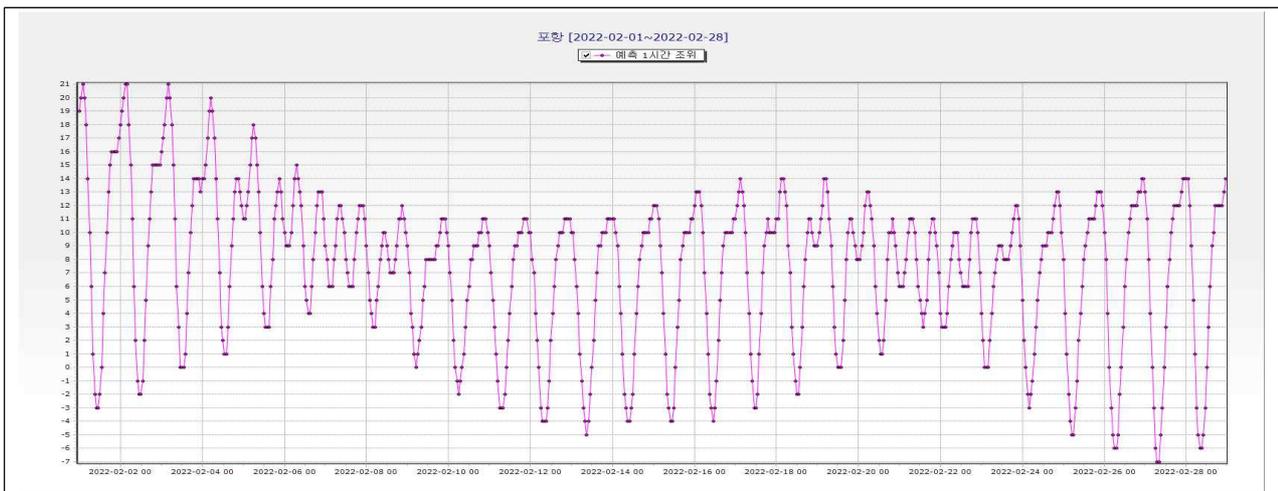
2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2년 2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2년 2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2년 2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해상조난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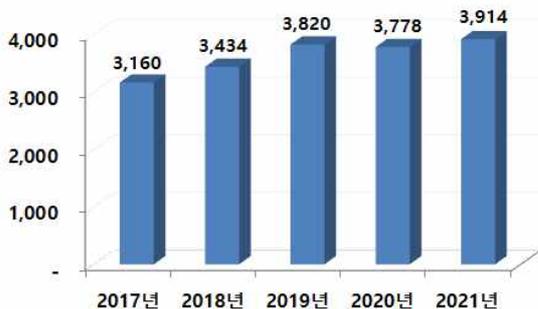
제공: 해양경찰청

■ 해상조난사고 통계(최근 5년간, '17~'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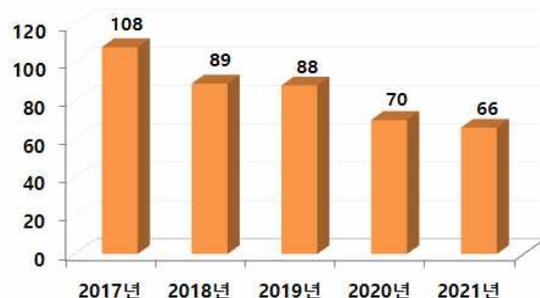
- 최근 5년간 18,106척(연평균 3,621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98,550명 중 421명(사망 290명, 실종 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통계자료 : '21.12.22일 기준)

구분	발생		구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계	18,106	98,550	17,763	98,129	421	290	131
2021년	3,914	19,689	3,808	19,623	66	43	23
2020년	3,778	21,507	3,710	21,437	70	50	20
2019년	3,820	20,422	3,758	20,334	88	58	30
2018년	3,434	19,596	3,385	19,507	89	56	33
2017년	3,160	17,336	3,102	17,228	108	83	25
평균	3,621	19,710	3,553	19,626	84	58	26



< 사고발생 현황 >



< 인명피해 현황 >

■ 해상조난사고 현황(2월)

- (총괄)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 18,106척 중 2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917척(5.1%)으로 연 평균 183척의 사고가 발생

* 최근 5년간 2월에 발생한 인명피해(사망·실종자)는 39명

- (선종별) 어선 57.7%(529척) > 레저선박 12.6%(116척) > 예부선 8.7%(80척) 등 順으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를 제외하고 침수 9.1%(83척) > 충돌 7.3%(67척) > 접촉 4.8%(44척) 등 順으로 발생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등

- (원인별)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 38.1%(349척) > 운항부주의32%(293척) > 관리소홀 10.8%(99척) 등 順으로 발생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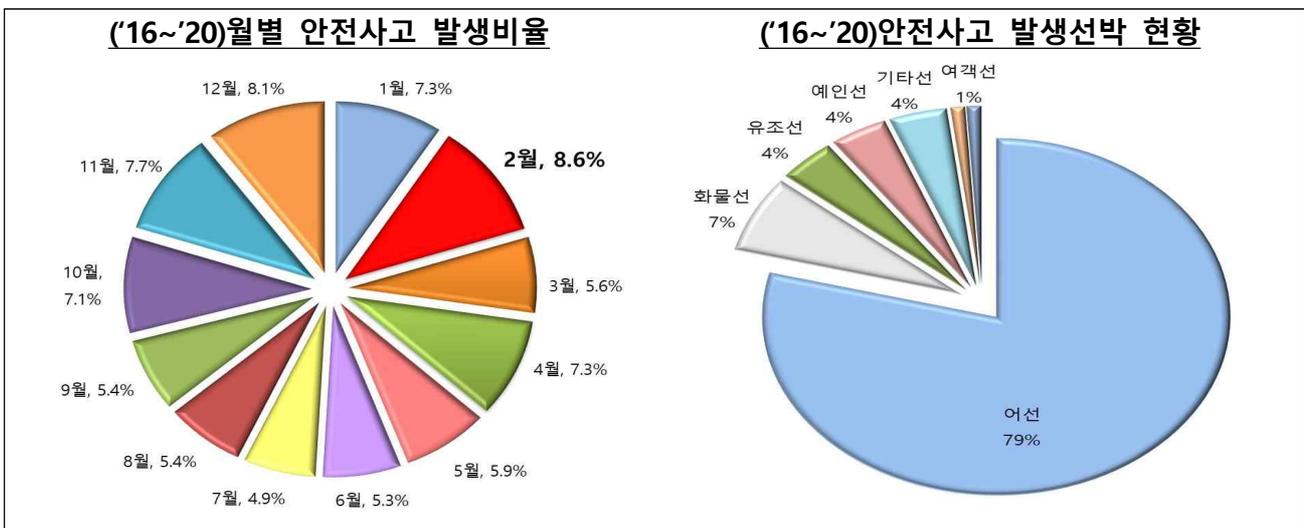
■ 최근 5년간 2월 평균 144건 발생했으며,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86	144	176	193	235	234	244	258	308	300	244	216

-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는 총 720건. 주요사고는 안전사고* 62건, 충돌 60건, 화재·폭발 37건, 전복 19건, 침몰 12건 등의 순으로 발생
* 안전사고 : 충돌,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종류별) 사고 선박은 총 804척. 어선 558척, 기타선 71척, 화물선 42척, 예인선 32척, 유조선 29척, 여객선 13척의 순으로 발생

■ 2월 사고 발생건수는 적지만, 안전사고의 발생비율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로 선내 작업안전 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사고현황) 최근 5년간 2월중 발생한 해양사고 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8.6%로 연중 최대(연평균 6.5% 대비 32% ↑)
- (사고원인) 안전사고의 대부분(79%)이 어선에서 발생, 조업 중 해상추락, 양망기 신체끼임, 어구·줄 타격, 잠수작업 중 익사 등 사고형태가 다양
- (사고예방) 투망 중 주위 확인, 안전장구 착용, 양망기 2인1조 작업 및 어구·줄과 안전거리 유지 등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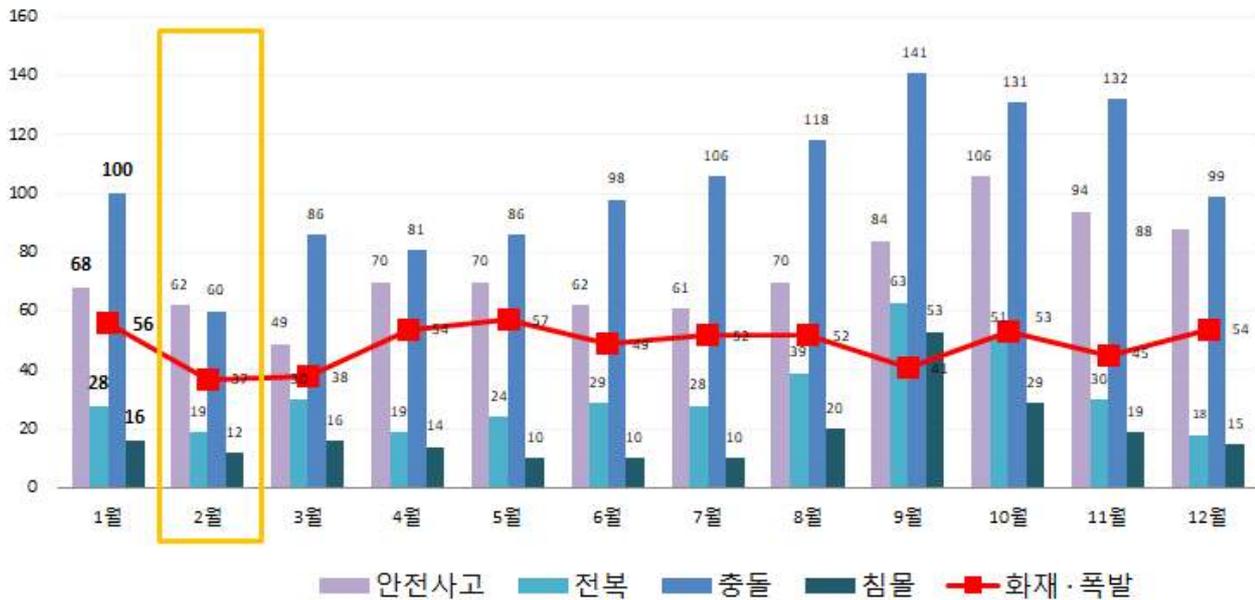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6~'20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건수('16~'20년)

단위: 건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선박종류별 사고선박 척수('16~'20년)

단위:척



☞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 2. 참고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물과학원

■ 2월 어황정보

○ 지난달(1월)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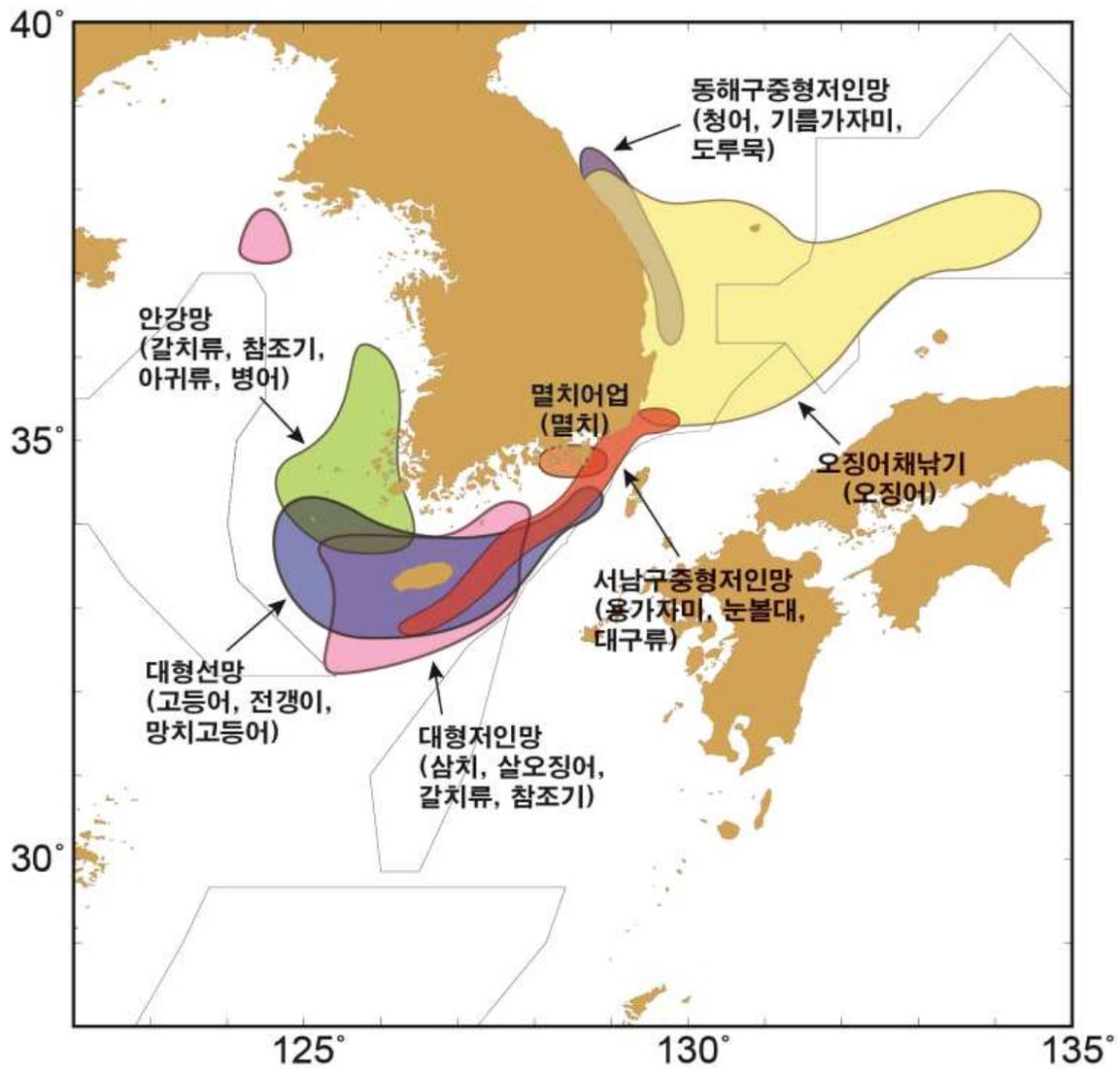
- 1월(월보기간: 12.19~1.22)의 주요 어종별 어황으로는 갈치, 고등어, 망치고등어, 참조기는 평년대비 순조로웠고, 멸치, 살오징어, 전갱이는 평년대비 부진하였음

○ 2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전갱이, 망치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동해 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2월의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권현망어업:** 수온하강에 따라 근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가겠음. 가을이후 자원밀도 감소로 단위노력당어획량은 낮은 수준이며, 2월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근해안강망어업:** 주요 어종들의 남하(월동)회유에 따라 제주 북서부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갈치, 참조기 아귀류, 병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연조업척수와 단위노력당어획량 모두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대비 순조로울것으로 전망됨
- **저인망어업**
 - **대형쌍끌이저인망어업:** 삼치, 고등어, 갈치, 병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서부 근해~제주남부, 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조업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서부 근해~제주 남부, 남해 해역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지겠고, 삼치, 갈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제주 남서부 근해~부산, 울산 근해에서 용가자미, 눈불대, 대구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근해에서 기름가자미, 도루묵, 청어를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 저인망어업의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오징어채낚기어업:** 산란을 위해 남하 회유하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경북/경남 연·근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은 연조업척수의 감소에도 평년대비 매우 부진(28%)하여,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대비 부진이 이어지겠음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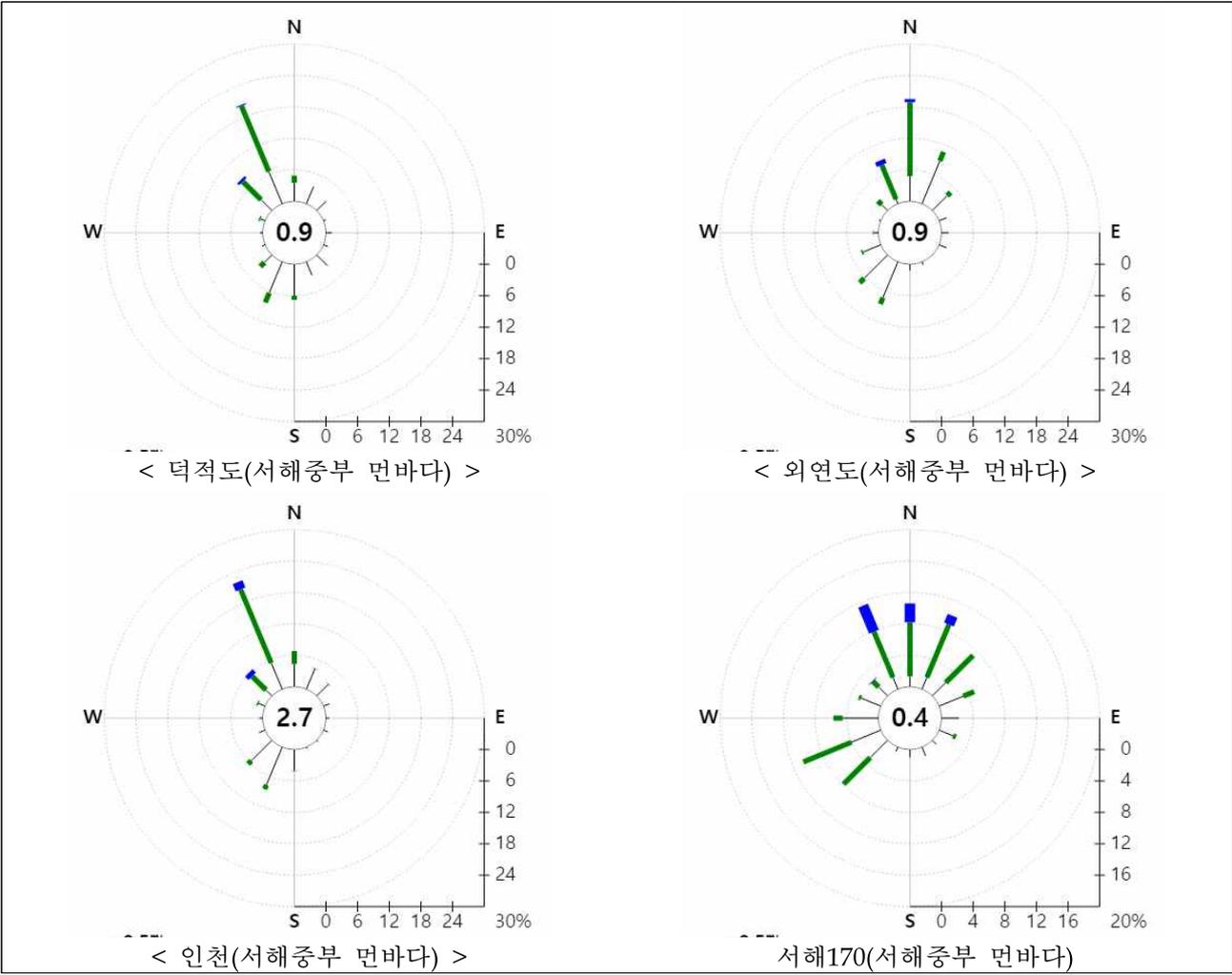
고 등 어	계절적인 수온 하강에 따라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동해 남부해역~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전갱이	산란시기(1~4월)를 맞아 동중국해로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제주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겨울철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어군 밀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겨울산란군의 남하회유가 이어지며, 이때 산란회유를 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 남부해역(경북/울산 근해)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동해 남부해역의 해양환경 변동성에 따라 어황 또한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대비 동해수온은 상승하였으나, 최근 어군밀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멸치	겨울철 연안 수온하강에 따라 외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 중부해역(남해도와 거제도 주변)을 중심으로 권현망어업이 조업을 이어나가겠다. 가을철 이후 낮은 자원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치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다. 주어기(8-12월)가 지나 전월보다 어획량은 감소하겠으나, 최근 고수온으로 남하회유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참조기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고, 특히 제주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주어기(9-12월)를 지나면서 전월대비 어획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망치고등어	주로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 어장(제주서쪽 먼바다, 제주 주변)에서 함께 어획되고 있으며, 최근 고등어 어획량 증가와 더불어 평년수준의 어황을 기록하고 있다. 계절적인 수온하강에 따라 어장은 제주 주변해역으로 남하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의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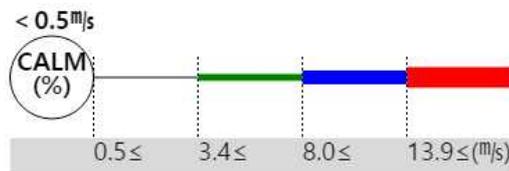
< 2022년 2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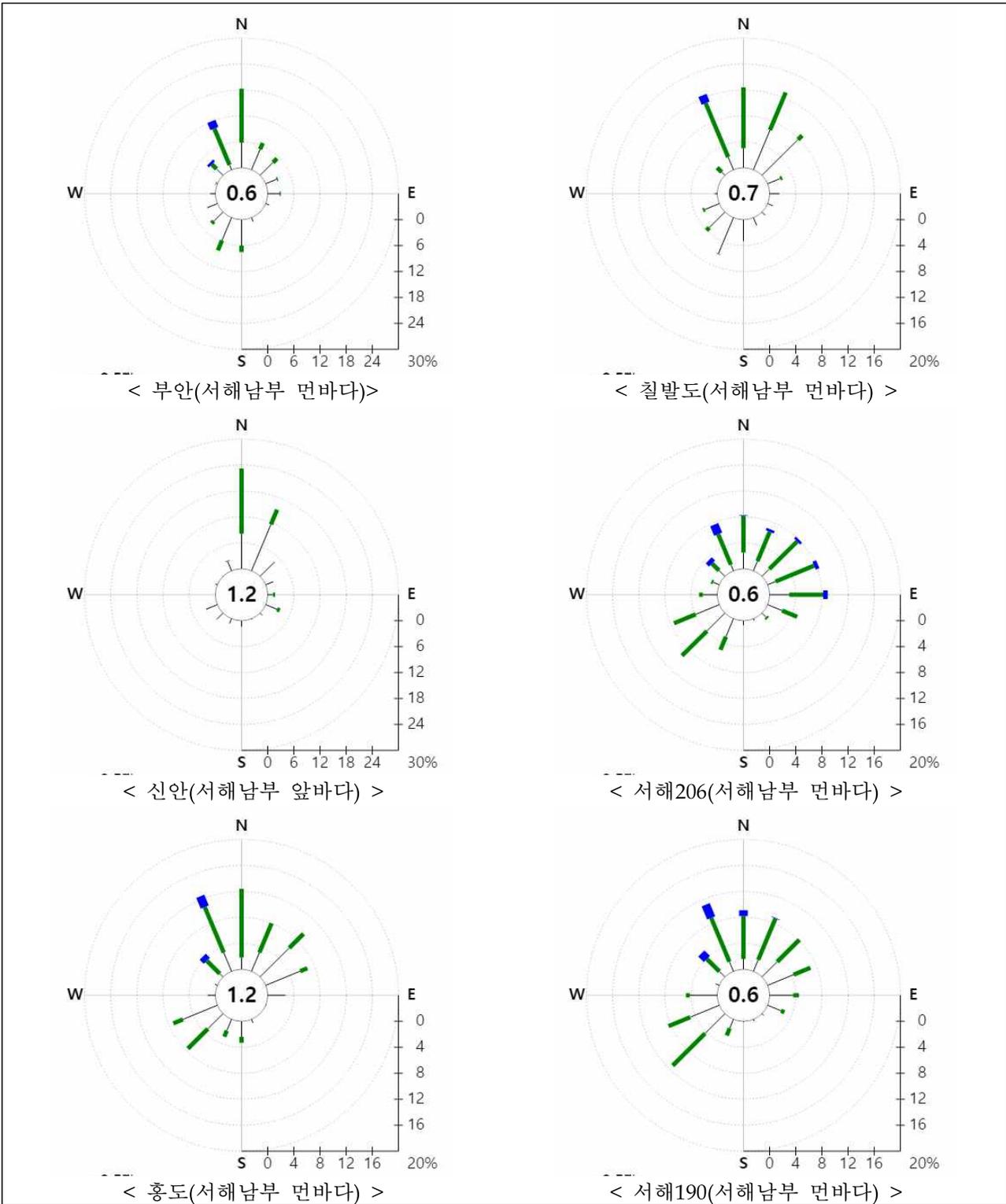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중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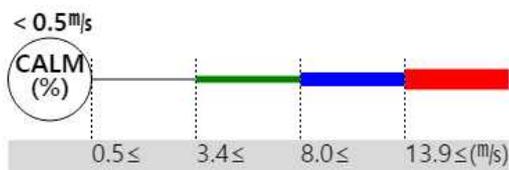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1년 2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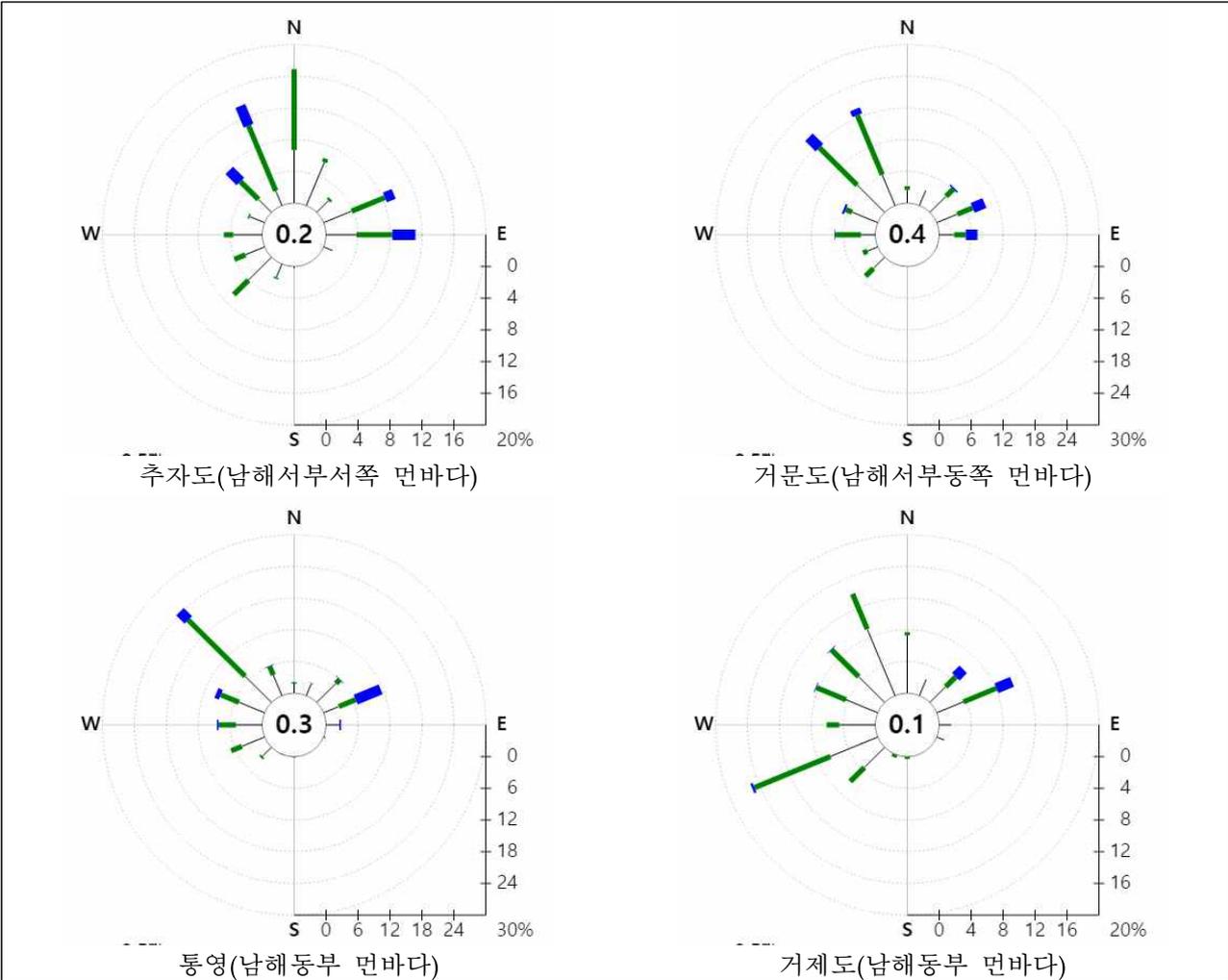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남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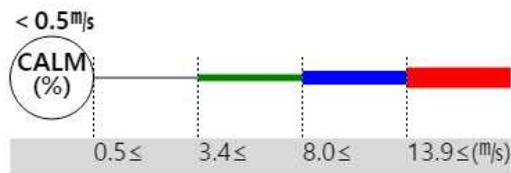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1년 2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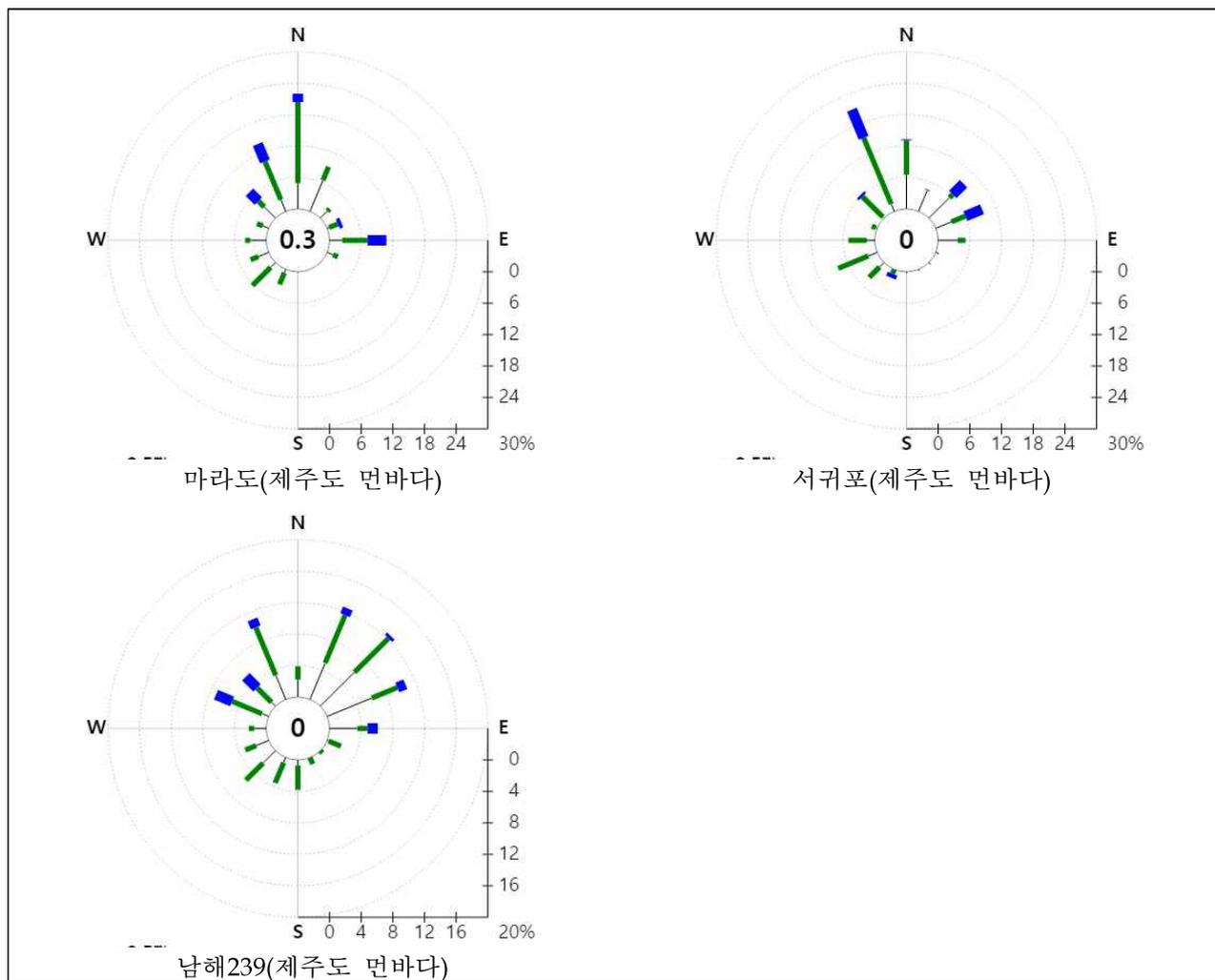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1년 2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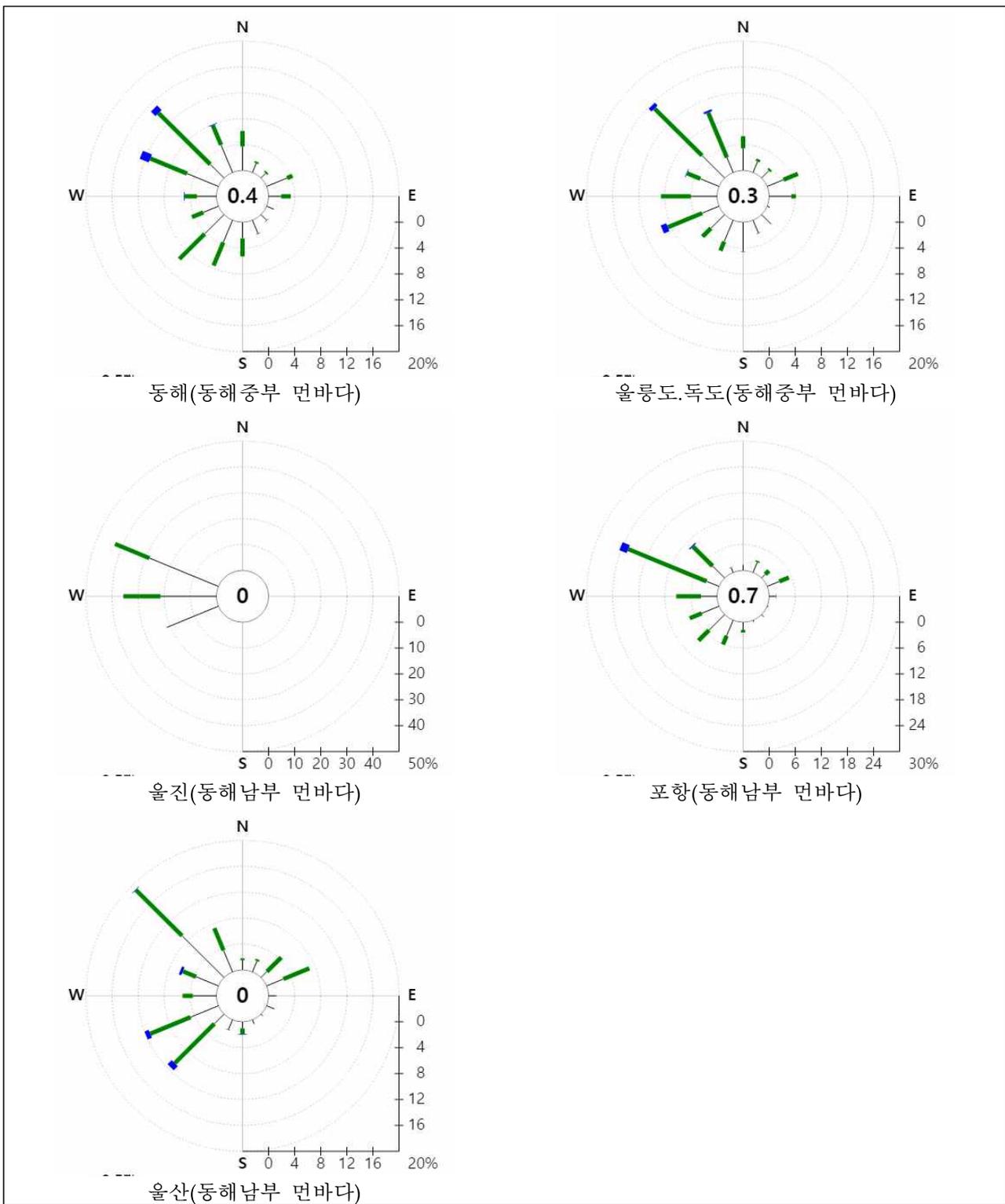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제주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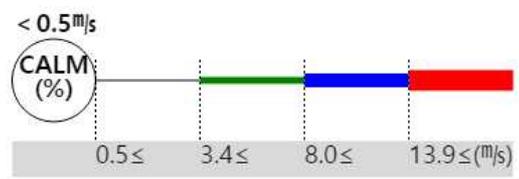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1년 2월, 바람장미) >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1년 2월, 바람장미) >



【부록 2】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어선 A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개 요	선 박	A호: 어선, 66톤, 길이 26.36미터, 디젤기관 837kw 1기
	일 시 장 소	2020. 2. 23. 20:51경 서귀포시 마라도등대로부터 121도 방향, 거리 약 41.4마일 해상
	피 해 상 황	선박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선원이 실종, 이후 수중 수색 결과 익사 상태로 발견
	날 씨	맑은 날씨, 남서풍 초속 약 4~6m, 파고 약 1m, 시정 양호
원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선원사망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 제거를 위하여 선장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에게 단독 잠수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교 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에서 추진기에 폐그물 등이 감겨 잠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육상의 전문 잠수업체를 수배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어선에서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잠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감시인이 배치된 상태에서 잠수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에서 잠수작업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2인 1조로 실시되어야 함 	

2. 어선 B호 선원부상사건

사건 개요	선박	B호: 어선, 9.77톤, 길이 14.55미터, 디젤기관 368kw 1기
	일시 장소	2020. 2. 21. 05:30경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 북방파제로부터 083도 방향, 거리 약 12.1마일 해상
	피해 상황	선원이 혼자 양망기를 작동하며 그물을 올리던 중 다른 어선의 그물과 끼여 그물이 올라오지 않자 꼬인 줄을 풀기 위해 양망기를 역회전 시키 면서 그물을 내리다 자신의 오른손 검지가 양망기와 그물 사이에 끼여 절단
	날씨	맑은 날씨, 남서풍 초속 약 4.5m, 파고 약 0.5m, 시정 양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물을 양망하던 중 꼬인 줄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양망기 가동을 중 단하고 다른 선원의 지원을 받거나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혼자서 양망기를 조종하며 작업하던 선원의 부주의로 손 가락이 양망기에 끼여 발생한 사고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 부 원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조업 중 선원은 줄에 장력이 생김으로써 줄이 절단되거나 양 망기에 신체가 접촉되어 부상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다하여야 함 ○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위험 요소가 생긴 때에는 조업을 중지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관리해야만 함 	